

2023 설날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같 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6) -아멘-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 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2)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2)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2)

대 표 기 도 인 도 자
(가족중에서)

성 경 봉 독 신 11:8~12 다 같 이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
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
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
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

리라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담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설 교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인 도 자

신명기서는 언약 즉 약속에 관한 모세의 설교로 총 3편의 설교 중 오
늘 본문은 4장 후반절부터 시작된 2번째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약속의 핵심은 땅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땅을 주시겠다는 것
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애굽
땅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얻는 땅은 자신들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익
히 알고 있던 애굽땅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땅에 물을
대는 방법인데 밭로 물을 댄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인공적인 방법
즉 수차를 밭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오는 것을 가리키
는데 이 일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곧 사람의 수
고와 노력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수고하고 애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에 비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
씀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한 마디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
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가나안을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묘사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어린아이를 늘 자신의 시선에 두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 늘 자신의 시선에 아이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순간 생각지도 않은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선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뢰가 깨진 시대에 살아가면서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금 찾게 되듯 우리 역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고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해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별됨의 영성으로 승화시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성실과 진실로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섬기는 교회와 직장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복된 삶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다 같이

1. 2023년 새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2.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올 한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